
저자 (Authors)	이민용
출처 (Source)	불교학보 11 , 1974.12, 224-228(5 pages) BUL GYO HAK BO 11 , 1974.12, 224-228(5 pages)
발행처 (Publisher)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Institute for Buddhist Culture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6392967
APA Style	이민용 (1974). 한국의 금강경신앙과 영험전. 불교학보, 11, 224-228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 사문화관 183.106.106.*** 2021/09/29 11:03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韓國의 金剛經信仰과 靈驗傳

李 珉 容

(1)

한 宗教의 信仰內容을 직접적으로 전달해 주는 것은 그 宗教가 갖는 聖典임은 당연한 사실이지만 이 聖典이 또한 信仰의 대상으로 神秘化되어 존중되는 일이 宗教史에서 흔히 발견되고 있다.

韓國의 佛教信仰가운데 經典 自體를 그러한 信仰의 대상으로 삼은 경우가 적지 않게 발견되고 있으니 金剛經을 위시하여 華嚴經·法華經·金光明經·仁王經 等 佛教史上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經典들이 한결같이 通俗的인 民間信仰의 대상으로 생각되었다.

그 대표적인 例로 이 經典들이 名種 道場의 中心經典이 되어 華嚴道場·法華道場·仁王道場 等を 開設하여 祈雨·天災地變·消災·外侵에서의 보호를 비는 등 經典信仰을 유포시켰다.

新羅時代부터 시작된 이 道場信仰은 高麗時代에 이르러 일종 道場 全盛時代를 이루었고 李朝時代까지 연면히 계속되었다.

한편 經典을 書寫한다거나 彫板하는 일도 훌륭한 信仰으로 생각되었으며 高麗 高宗代에 이룩된 高麗大藏經은 그런 경우에 있어 量的인 面에서의 대표적인 例가 됐다.

곧 經典이 지닌 宗教的 내용들인 敎學體系·思想들과는 관계없이 또는 그 내용에 근거하여 時代的·地域的 여건에 따라 혹은 民俗의 性格을 따라 信仰은 變形되어 民間에 受容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變形 혹은 定着過程에서 特定한 經에 대한 神秘한 사건들, 靈驗的인 傳說·說話가 발생되고 그것들은 民間의 愛好를 받으며 일정한 형태의 靈驗傳·持驗記 등으로 수집·편찬되었다고 생각된다.

金剛經에 대한 이러한 民間信仰的인 요소를, 따라서 다음과 같은 두 部面에서 정리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 1) 靈驗傳을 통해 본 金剛經信仰.
- 2) 金剛經 流通過程에서 본 金剛經信仰.

(2)

韓國의 文化背景에서 成立된 韓國 撰述의 金剛經靈驗傳은 아직 發見되지 않고 있다. 오직 韓國에서 開刊·流布된 靈驗傳이 몇가지 전해지고 있을 뿐이다. 그 가운데 時代的으로 가장 오래된 것은 高麗 禔王 4年(1378)에 刊行된 金剛經疏纂要助顯錄가운데 몇 개의 靈驗記事가 收錄되어 있다.

그리고 靈驗의 발생 장소 및 등장인물이 모두 中國에 起源을 두고 있으며 靈驗傳 혹은 持驗記라는 名稱을 띤 하나의 冊으로 編錄·開刊되어 現在까지 傳承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1) 漢譯本

- (1) 金剛經疏纂要助顯錄中 應驗; 5篇 收錄(高麗 禔王 4年, 1378)
- (2) 金剛經持驗記; 62篇 收錄(康熙 25年, 1686)
- (3) 持驗記; 62篇 收錄(康熙 25年, 1686)

2) 諺解本

- (1) 持經靈驗傳; 19篇 收錄(正祖 19年, 1795)
- (2) 金剛經靈驗傳; 19篇 收錄(正祖 19年, 1795)
- (3) 지경녕험던; 3篇 收錄(刊年無)

1)의 (2)(3)은 書名만 다를 뿐 同一한 版本에서 印出한 것이고 (1)에 收錄된 5개의 靈驗記事가운데 2개만이 (2)(3)의 내용과 一致되고 있으며 그 서술 형태는 (2)(3)의 것을 축약해 놓았을 뿐이다. 따라서 漢文本의 靈驗記事는 2가지 典據가 있다고 볼 수 있다.

2)의 (1)(2)는 各己 書名만 다를 뿐 同一한 版本의 것이고 (3)은 筆寫本으로 (1)(2)의 내용가운데 앞 部分 3篇만을 그대로 筆錄한 것이다. 한편 2)의 (1)(2)는 1)의 (1)(2)의 앞부분 19篇을 역시 자의적으로 선택 번역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版本上으로 볼 때 靈驗傳은 漢文本 2種, 諺解本 2種으로 생각될 수 있으나 金剛經疏纂要助顯錄을 제외하면 실질상 한 가지 종류만이 傳承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金剛經靈驗傳이 모두 中國人의 생활체험에서 나온 靈驗說話만이 收錄되어 우리 나라에 流布되었다는 것은 기이한 느낌을 주는 것이다. 法華靈驗傳·華嚴靈驗傳 等에는 新羅를 비롯한 우리 나라 사람들의 靈驗說話가 함께 수록되었던 사실을 볼 때 金剛經靈驗說話 역시 우리의 宗教 體驗에서 이룩되었을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그러한 韓國의인 靈驗傳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 하나의 冊으로 된 靈驗傳은 발견되고 있지 않지만 三國遺事에는 唯一하게 그리고 가장 오래된 한편의 金剛經信仰의

說話를 전해 주고 있다.

三國遺事 卷5 善律還生條에 다음과 같은 記錄이 나오고 있다.

“望德寺 僧 善律은 布施하는 돈으로 六百般若經을 조성하려다 다 이루지 못하고 갑자기 閻羅國의 使者에게 잡혀 冥府에 이르렀다. 冥司가 물기를 ‘너는 인간에 있을 때 무슨 일을 했느냐’고 했다. ‘貧道는 만년에 大品般若經을 이루려 하다가 功을 이루지 못하고 왔읍니다.’ ‘너의 壽錄에는 이미 목숨이 끝났으나 뛰어난 소원을 마치지 못했으니 다시 인간 세상에 돌아가 寶典(般若經)을 완성시키라.’하고 놓아 주었다.

善律이 冥府에서 돌아 오던중 한 女人의 請을 받는다. 그 女의 父母는 金剛寺의 논을 뺏었기 때문에 冥府에 잡혀 오게 되었던 것이다. 이 女人은 이미 15年 前에 죽었는데 그 女의 請대로 해주고명복을 빌어 苦惱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그때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감동하며 般若經을 도와 이룩하게 한다. 經帙은 지금 경주의 僧司書庫안에 있는데 해마다 봄 가을이면 그것을 펴서 轉讀하여 재앙을 물리친다는 것이다.”

이 靈驗說話는 앞에서 言及한 金剛經持驗記의 靈驗說話의 主題나 展開方式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金剛經대신에 般若經이라 되어 있지만 그것은 같은 系列의 經典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으며 이 經을 조성한 功德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點이라던가, 金剛寺의 논을 훔친 罪로 冥府에 떨어졌다면, 봄·가을에 이 經을 읽으므로써 재앙을 물리친다고 하는 金剛經의 靈驗이 그대로 表現되어 있는 것이다.

이토록 혼란한 靈驗說話가 遺事에 記錄되었다면 이런 種類의 靈驗談은 계속 增加되고 俗傳되었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韓國에서 이룩된 靈驗傳은 아직 한 卷도 발견되지 않고 있다.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靈驗傳인 金剛經持驗記는 그 起源을 中國에 두고 있다. 中國에서 傳來되는 靈驗傳은 상당한 量에 달하고 있으며 또 그 成立 과정도 단순치가 않다. 한국에서 流布되었던 金剛經持驗記의 原型은 이들 중국의 靈驗傳가운데 淸의 周克復 撰述인 金剛經持驗記라고 생각된다.

1)의 持驗記의 內容과 周克復 撰述의 持驗記의 이야기를 대조시켜 볼 때 前者는 後者の 靈驗談가운데서 恣意로 62篇을 그대로 옮겨 적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周克復의 持驗記는 또 다음과 같은 文獻들에서 靈驗記事를 뽑아 편찬하였다.

- (1) 太平廣記; 5話を引用
- (2) 報應記; 6話を引用
- (3) 金剛證果; 13話を引用

- (4) 法苑珠林; 2話を引用
- (5) 廣異記; 3話を引用
- (6) 鳩異; 5話を引用
- (7) 湖廣通志; 1話を引用
- (8) 金剛靈應; 6話を引用
- (9) 巾馭乘續集; 5話を引用
- (10) 受持果報; 5話を引用
- (11) 載相城志; 1話を引用
- (12) 新異錄; 8話を引用
- (13) 明遠再生傳; 1話を引用
- (14) 惕若齋續集; 1話を引用

金剛經纂要助顯錄의 靈驗記事는 周克復의 持驗記나 1)의 持驗記보다 時代的으로 앞서고 있으며 靈驗記事는 간결한 형태로 되어 있다. 따라서 助顯錄의 그것은 또 다른 靈驗傳에서 들어 온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에서 다른 靈驗傳의 版本上の 문제는 만족할 만한 것이 못하고 本格的인 조사·연구 시도가 요청되고 있다.

다음 1)의 持驗記의 內容을 主題別로 分類하면 ① 冥府에 관한 것이 壓倒的으로 우세하고 ② 壽命 ③ 治病 ④ 祈雨 ⑤ 免刑·免難·水害에 관한 이야기들이 다음을 차지한다. 이 說話의 主人公 背景은 모두 中國에 근원을 두고 있어 中國의 佛教 民間信仰의 反映이라 생각할 수 있다. 韓國의 展開·變形을 찾을 수 없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祈雨·水難과 같은 자연환경이나 地域의 성격에서 발생하는 이야기나 免刑·免難 등 政治·社會的 여건에서 발생하는 이야기 또는 壽命·治病과 같은 일반적인 경험담들이 韓國에서는 時代的·社會的·地域의 성격을 떠나 宗教 一般의 靈驗(奇蹟)으로 普遍化되어 受容되었기 때문에 새로이 靈驗傳을 편찬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다. 또한 中國의 경우 靈驗傳의 대부분이 微官末職의 在家信者들에 의해 編纂되고 있는데 우리의 경우 그러한 作業을 할 在家信者의 知識階層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固有의 靈驗傳이 成立되지 못한 것이 아닌가도 생각된다.

(3)

金剛經에 대한 또 다른 신앙 형태는 諺解本을 통해서 들어나고 있다. 現在의 諺解本들은 靈驗傳의 內容에 關心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諺解하는 일’ 自體를 功德으로 생각하고 信仰한 흔적이 뚜렷하다. 恣意的으로 첫부분 19篇을 뽑아 國譯한 경우이거나,

2)의 (3)의 筆寫本은 단지 첫 부분 3篇만을 書寫한 것으로 그 作業自體를 信仰化한 경향이 명백히 들어난다.

金剛經의 開刊·流通·道場設置 역시 金剛經信仰의 한 모습을 말하고 있다. 現存하는 金剛經 版本 約 70種가운데 그 版本들의 跋文·刊記에 기록된 내용은 亡者의 冥福을 빌기 위한 것이 대부분이고 長壽·兵事를 위한 功德에서 刊行된 것이 다음의 위치를 차지한다.

곧 靈驗傳의 경우에서도 冥府에 관한 說話가 首位를 차지하듯 이 경우에서도 冥府에 관한 것이 가장 많다. 金剛經信仰은 한결같이 死者와 관계되어 死後의 일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金剛經을 Dharāṇi 化시켜 金剛般若波羅密多經纂이나 金剛經塔을 만들어 거기서 神異한 威力을 빌고 있다. 그리고 冥府와 긴밀한 관계를 지니는 절 때문에 佛像造成에서 冥府殿의 閻羅大王이 머리에 金剛經을 받들고 있는 모습으로 表現되고 있다. 또 사람이 죽었을 경우 死體위에 金剛經塔을 덮는다거나 관속에 100部, 500部の 조그만 金剛經을 넣어 死者의 冥福을 비는 일은 지금도 流行되고 있어 뿌리 깊은 金剛經信仰의 一面을 보여 주고 있다.

道場의 開設은 특정한 經에 대한 法會로서 佛法을 弘報한다는 意義를 지닌 것이나 卍래의 이러한 의도에서 벗어나 道場의 設置가 靈驗을 가져다 주는 일로 생각되었다. 이미 新羅時代부터 시작되어 고려시대에 와서는 道場 全盛時代를 이루었으며 이 때에 金剛經에 대한 道場도 상당히 流行되었다. 高麗史에 의하면 金剛經 道場 11回, 般若經 道場 12회가 開設되었고 道場開說 目的은 各己 祈雨·以禳天變·以禳星變 등 國家的인 安寧을 위한 金剛經信仰이 流行되었다.

死後의 명복을 비는 일은 金剛經에 대한 個人的인 信仰의 表現이라고 생각되며 天變·星變·祈雨에 관한 것은 金剛經信仰이 國家的 次元에서 이룩된 경우라 볼 수 있다. 곧 金剛經에 대한 民間信仰은 個人에 국한되지 않고 國家大事와도 연관을 맺는 經典의 大規模의인 信仰化가 이룩되었던 것이다.